

새 책

마을 풍경 위해 농촌서 만든 사과주스 산다

▶모두의 친절(이나라 지음)=작가의 등단작인 '오른쪽'을 비롯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쓰인 여덟 편의 단편이 수록됐다. 소설집은 도덕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대개 여성일 때가 많다. 작품 속 인물에게 기대하는 바를 배반함으로써 그동안 익숙하게 여겨져온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우리를 안내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항상 울바르고 다정할 것을 요구받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느끼게도 한다. 문학동네, 1만3500원.



▶황홀한 사람(이리요시 사와오 지음, 김욱 옮김)=일본에서 1972년 출간된 해에만 192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당시 치매, 여성과 돌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로,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청미, 1만5000원.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김제동 외 지음)=방승인 김제동이 지난해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 7인을 만나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건져 올린 지식과 지혜를 담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까'를 다시 묻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길의 방향을 모색한다.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나무의마음, 2만5000원.



▶케이팝 시대를 향하는 콘서트 연출기(김상욱 지음, 김윤주 그림)=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하던 한 소년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알 수 없었던 청소년기를 거쳐 어떻게 콘서트 연출PD로 성장하게 됐는지 들려준다. BTS의 데뷔 쇼케이스 연출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콘서트와 팬미팅 연출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보여준다. 달, 1만4800원.



▶집에서 하는 몬테소리 감각놀이(마사 피타익 지음, 오광일 옮김)=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에 보낼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책은 집에 있는 재료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아이들의 감각·신체적 경험을 충족시켜 줄 77가지 놀이를 알려준다. 유아익스, 1만6000원.



▶주간 인물 한국사(박은철 글·그림)=고대에서 근현대까지 역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52명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1주 1인물'로 구성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 만으로도 한국사 전체 흐름을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자는 또 한자로 이뤄진 역사 용어를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창비, 1만2000원.



우네 유타카의 '농본주의를 말한다'

경영이 된 농사에 대한 의문 자본에서 매번 환경직불금

어느새 농사 짓기도 경영이 되었다. 소득이나 이윤의 액수로 농업 경영을 평가하고 비용과 생산성으로 측정하는 걸 당연시 여긴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업제품들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소비자들에 혜택을 보듯, 농산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사에 소득, 비용, 노동시간 등 근대화의 척도를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농사란 농지를 통해 천지자연을 갈고 닦아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농(農) 사상가가 저술가, 농학박사인 우네 유타카 씨는 그 같은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농본주의를 말한다'엔 애당초 농사를 진보, 발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면 농사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서른아홉 살에 농부가 된 저자

는 일본의 대표적인 농본주의자의 사상과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3대 원리를 짚어냈다. 첫째, 2000년 이상 계속된 농사는 본질적으로 산업화, 자본주의화, 경제 성장과 화합할 수 없다. 둘째, 지역화의 원리로 시골(지방)이 중심이 된 자립·자치를 지향한다. 셋째, 자연에 대한 몰입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다.

저자는 농사의 가치를 시장경제 속에서만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두 차례 독일을 방문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어느 농촌 마을에서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판매 중인데, 날개 돌진 듯 팔리는 현장을 봤다. 잘 팔리는 이유는 무농약으로 재배된 사과이거나 특별한 착색 방법을 사용해서도 아니었다. 도시 사람들은 "이 사과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마을의 풍경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사 갔다.

유럽연합(EU) 국가의 농민들은 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국가나 EU 세금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다. 풍경이나 자연환경의 가치나 그것을 지탱하는 농법에 지불되는 환경직불금 정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농사에서 반이 넘는 부분을 시장경제와는 별개로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농사를 자본주의로부터 떼어낸 결과라고 밝힌 저자는 "먹거리의 가치는 그 먹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깥의 자연이나 풍경에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먹거리는 자연의 은혜'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한 농업론"이라고 했다. 김형수 옮김, 녹색평론사, 1만1000원. 진선희기자

새들의 투지 떠올리며 삶의 용기 얻는 소년

다라 매커널티 '15살 자연주의자의 일기'

그의 이름은 다라. 아일랜드 신화에 흔하게 나오는 명칭으로 '참나무'라는 뜻과 함께 '현명하고 알차다'란 의미를 지녔다. 자페 스펙트럼이 있는 다라는 기쁨을 통제하지 않고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한다. 그런 이유로 다라는 학교에서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새와 이끼, 곤충과 꽃들, 그리고 가족들이었다.

다라 매커널티의 '15살 자연주의자의 일기'는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 배운 것들로 세상을 다독이고 사랑하기로 한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집에서, 자연 속에서, 머릿속에서, 봄에서 겨울로 세계가 변화하

는 과정과 더불어 인생의 폭풍을 견뎌 내는 모습이 들어 있다. 다라는 작은 몸집의 새들을 보며 감탄과 동시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제비들은 굶주림, 탈진과 싸우면서 6주 동안 매일 300킬로 미터를 날기 때문이다. 다라는 학교, 사람, 교실 같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걱정이 시작될 때면, 제비의 회복력과 투지를 떠올린다.

땅바닥에 누워 참나무 가지를 올려다볼 때도 있다. 그림자도 얼룩덜룩한 빛이 우겨진 가지 사이로 비치고, 나뭇잎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술을 속삭이는 것만 같다. 그 나무는 사는 동안 슬한 멸종과 사랑과 상실을 목격했을 것이다. 다라는 생각한다. "우리가 나무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무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



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텐데." 자연에 몰입하면서 용기를 얻고 성장해 가고 있는 다라는 우리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 나비가 우아하게 날갯짓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집 주변에 어떤 새들이 언제, 얼마나 찾아오는 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민영 옮김, 뜨인돌, 1만5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박산 장편소설 '폭낭의 기억' 이토록 아름다운 땅에 잔인한 세월

이 책을 낳은 건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었다. 그는 1980년에 그 소설을 읽으며 "제주에서 시작된 '피의 춤'의 광기가 다가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 같은 문제 의식이 열어지기 전에, 열정이 식기 전에 쓰고 싶었고 40여 년 만에 나온 작품이 장편 '폭낭의 기억'이다.

스스로를 "육지짓"이라고 칭하는 박산 작가는 '순이삼촌'을 만나며 "저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예쁘고 이토록 정겨운 터"가 "잔인한 죽음과 억압과 굴종의 현장"이었음을 알았다. 함덕, 관덕정, 다랑쉬, 빌레못, 복촌 포구, 천지연 등 제주 곳곳 4·3의 사연을 품지 않은 데가 없었다. 박 작가는 처음 세상에 내놓는 이 소설을 통해 그 아프고 눈물 나는 "4·3 수난사"를 폭낭의 기억에 새기려 했다.

'제주4·3 역사소설'로 칭한 이 작품은 200자 원고지 6500여 장 분량의 총 5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그중 이번 에 나온 건 '떠나간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이란 부제를 단 1~2권으로, 나머지 3권도 연내 출간을 목표로 했다.

장편 집필을 위해 9월에 걸쳐 4·3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탐문했다는 작가는 각종 보고서, 논문, 기사, 사진, 소설, 시 등을 들여다봤다. 일본과 미국

측의 자료도 살폈다고 했다. 1940년대 초반부터 펼쳐지는 소설 속 인물은 실재와 허구를 오간다. 아일랜드 도슨 신부, 신홍연 스님, 오이화 스님, 김익렬, 김달삼 등을 불러냈고 문학적 상상력을 입혀 김윤, 김건, 고바랑, 강우 등을 창조했다. 1권에만 30명 가까운 등장인물이 소개됐다. 냉전의 산물로 인식되는 세계사 속 4·3의 위치를 말해주듯, 소설의 공간 역시 제주 하귀중학원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리틀 포로수용소까지 다르며 비극의 역사가 드리운 이산의 행로를 보여준다.

1~2권에서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제주 섬을 배경으로 공출과 강제 동원으로 고난 받는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태평양전쟁이 종전되자 오사카로 건너갔던 고산지는 귀향 후 학원 설립을 준비한다. 이 무렵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 58군은 철수에 앞서 정뜨르비행정에 은닉해 놓았던 쌀을 소각해 버린다. 이즈음 강제징용된 김윤 등은 도쿄 맥아더사령부의 차별적인 재일조선인 한반도 귀환 방침 끝에 고향으로 향할 날을 기다리지만 겨우 1000엔만 지참할 수 있다는 통보에 부산행 군함 승선을 포기한다.

작가는 "4·3이라는 급류의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도정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면서 "아직 4·3수난의 근원과 끝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더 거슬러 오르고 더 따라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간디서원, 각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